茶
한국불교
차문화 70년

차 한잔에도 禪의 맛이 있으니…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은 사회, 문화, 풍습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통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뜨거웠다. 기실 이 시기에 나타난 전통 차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출발된 것이다. 전통 차 문화의 복원과 확산을 주도한 것은 스님들이었다. 불교문화의 핵심인 차 문화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근·현대 차 문화의 현황을 살펴보려는 의도는 차 문화의 전성기에 드러난 차의 긍정성을 드러내는 한편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함을 보충해 보려는 것이다.

1) 근대의 차 문화

근대의 차 문화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의 다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시기였다. 사찰 또한 일본 다도의 영향을 배제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소수의 사찰 승려들은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을 지켜내려 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사찰에서는 산에서 채취한 약재를 다려 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실제 차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찰은 차나무가 산재했던 백양사, 대흥사, 송광사, 불회사, 보림사 등이다. 결국 근대에 전통 차 문화를 이어온 사찰 중에는 대부분 초의선사의 영향이 미친 곳이었다. 1926년에 쓴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巡禮)〉〉에 "백양사에서 나는 차가 좋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백양사에서 차가 생산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외에도 송광사의 금명보정은 범해각안의 제자로 차를 만든 다승이다. 그는 다사(茶事)를 노래한 시문을 남겼다. 대흥사에는 원응계정이 초의선사의 다풍을 이어 초의차의 제다법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를 응송 박영희가 이었다.

한편 일제가 민족성말살정책(1931~1945)을 주도하면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는 일본 다도를 가르쳤는데 이는 조선인을 순화, 일본화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고관대작이나 일본에 경도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식 가옥에 다실을 만들어 차를 즐겼는데 이는 우월한 일본 다도를 향유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일본에 경도된 조선인 중에는 일본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사찰 또한 일본 승려들과 교유했던 조선 승려들 중에는 일식 다도를 숭상하는 이도 있었다. 이는 일부 승려들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당시의 현실은 그러했다.

1918년 임야조사사업 시행 후 조선의 자연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든 일제는 합법적으로 조선을 착취한다. 조선의 역사, 문화, 민속, 종교 등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조선의 실정을 파악하려했다. 1937년경 모르오까 다모쓰(諸岡存1879~1946)와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가 조선의 차 문화를 조사하여 1940년 〈〈조선의 차와 선〉〉을 출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조사 당시 이들은 조선의 차 문화의 핵심이 사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간파하여 화엄사, 불회사, 보림사, 백련사 등을 조사하였다. 실로 차는 불교문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차와 불교가 융합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대략을 살펴보면 신라 말에 도당구법승들은 수행과 융합된 차 생활에 익숙했으니 신라로 돌아 올 때에도 차를 가져왔던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들은 좌선 수행의 장애였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적극 활용했던 당시의 선풍에 익숙했을 것이다. 이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인 차는 왕실에 소개된다. 특히 고려시대는 불교의 융성과 맞물려 최고의 차 문화를 꽃 피운 시기다. 이외에도 중국과 교류했던 왕실에는 귀품의 중국차가 들어와 문벌 사대부들에게 나누어졌지만 차를 만드는 일은 사찰의 수행승이 주도했다. 사찰 부근에 다촌이 형성되었고 귀품의 차는 수행승이 만들었다. 따라서 고려의 멸망 후, 조선 전기까지 차 문화를 이끈 계층은 수행승들과 왕실, 사대부들이었다. 문인들은 사찰을 찾아가거나 수행승들과의 교유를 통해 명품 차를 향유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차 문화는 점차 쇠락해졌다. 다시 차 문화가 중흥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초의선사는 초의차를 완성 차 문화를 확대했다. 그가 만든 초의차는 당대 유학자들의 차에 대한 기호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런 전통은 근대기를 거치는 동안 다시 쇠락할 대로 쇠락해져 명맥만을 유지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절인연이었다. 하지만 대흥사, 송광사, 백양사 등을 중심으로 차의 명맥을 근근이 지켜낸 것은 사찰의 수행승들이었다. 차가 나는 산지에서 차를 만들던 당시의 상황은 〈〈조선의 차와 선〉〉에 상세히 드러난다.

그들은 차를 만들던 민가를 조사, 현장을 답사한 후 이에 관한 자료를 축적했다. 당시 조선 총독부 산하 임업시험장에서는 차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조사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는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처럼 1932년 이전에 "전라남도의 차를 (무등산)묘포에 뿌려서 그 성적을 살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일본인 중에는 무등산, 지리산, 보성, 정읍 등지에서 차 공장을 운영했다. 조선 거주 일본인들에게 자생하는 차잎을 채취하여 파는 농민도 있었다. 특히 강진에서 생산된 청태전을 조사했고, 영암 성전리의 이한영이 만들어 판 백운옥판차의 제조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상품화된 금릉월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화엄사의 주지, 송광사의 주지 등 차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은 '대흥사에서 마시는 차가 제일 좋다' 고 말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다신전〉〉 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라고 하였다. 당시 대흥사 주지는 응송 박영희였다. 따라서 대흥사는 초의선사의 영향으로 일제강점기까지도 그의 다법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차의 종류는 잎차와 떡차 종류인 돈차, 떡차, 벽돌차 등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근대 차 문화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 일본 다도의 영향을 암암리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지만 차 문화의 명맥이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2) 현대 차 문화의 태동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중이 차에 관심을 둔 것은 70년대 중반이다. 72년도 정승수 소장은 "한국고유차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중에게 차를 알렸다. 이 무렵 전통 차 문화 복원을 위한 다인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전통차 문화 복원과 차 문화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던 시절 대중에게 차를 알리는 방편은 다례(茶禮)였다. 이는 차와 예가 융합된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 문화의 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실제 다례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예절을 교육시킨 점에서 그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의례의 절차와 형식에 치중된 다례는 결국 대중이 차를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점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현대 차 문화의 중심인 다례는 현대에 생성된 형식이며 틀이다. 하지만 전통차 문화의 특성적 요소인 검소와 소박성을 드러내기엔 불충분했다. 특히 차를 향유한 계층이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경향은 현대 차 문화가 지닌 한계로, 차의 응용폭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차의 본질적인 가치가 도외시되는 미흡성이 노출된 것이다. 더구나 사찰의 수행승에게 있어서 차는 참선에 필요한 물품이었다. 이런 전통 차 문화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현대 차 문화 형성과정에서 간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중반, 차를 문화 운동을 전개할 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2014년 11월에 열린 〈〈21세기 전통 차 진흥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차 문화 운동 초기에 참여했던 박동선 회장과 도범 스님의 증언은 어떤 처지에서 차 문화 운동이 전개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도범스님이 차 문화 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박동선회장과 명원 김미희(1920~1981)여사와의 인연 또한 그가 실질적으로 차 문화 운동을 주도하게 된 동기이다. 특히 김 여사와 박 회장 이외에도 독지가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차의 자료를 조사

일제 강점기 日 다도 문화 보급
사찰 수행승들이 차의 명맥 지켜

효당 스님, 차문화 대중화 앞장
응송 스님, 초의 스님 다풍 계승
박동선 · 김미희 차문화 복원 나서
초의 주석처 일지암 복원… 茶 성지 돼
차인연합회 결성… 5월 25일 '차의 날'

사찰 문화 마당에 늘 茶 등장
잡지 발간, 학술적 연구 영역 확대



불교는 해방 이후 전통차 문화를 복원 확산 시켰다. 불교의 수행 정신이 깃든 차문화는 1970년대 부터 새로운 문화의 흐름으로 주목 받았다. 외형적 의식에 대해서는 차의 본질적 가치를 도외시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동선 회장



명원 김미희 여사



대흥사 일지암. 1970년대 후반 초의선사가 주석했던 일지암을 복원하기 위해 다인들이 힘을 모았고, 일지암은 다인의 성지가 된다.



명원 김미희 여사의 유지를 이은 명원 문화재단의 차문화 시상식과 시연회. 지금은 김미희 여사의 딸인 김의정 씨가 궁중다례로 발전시켜 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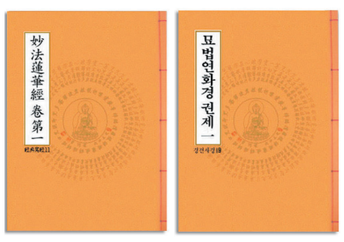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茶
한국불교
차문화 70년

수행·포교 넘어 차문화 복원 확산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의 일본 다도 교육 모습. 어쩔 수 없는 시대 선택이었다. 하지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차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하고 전통 차를 증언할 승려들을 만나는 일 등, 기초를 조사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동선 회장의 인기와 명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한다.

이런 차의 열기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1980년에 "전통다도풍속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연구에 참가한 김운학은 "오늘의 차인의 중심은 대흥사를 중심한 응송 스님과 진주를 중심한 효당 최범술 스님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응송 스님은 초의선사의 다풍을계승, 유지했던 반면 효당 스님은 대중에게 차를 널린 알린 분이다. 그는 〈〈한국차생활사〉〉를 저술하여 초기 차 문화 운동의 확산에 기여했으며, 차 강연을 통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외에도 독서신문에 한국 차 문화를 알리는 글을 연재하면서 〈〈동다송〉〉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다법은 채원화에게 이어졌다. 채원화는 1983년 효당본가반야로차문화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사천지역에서 "반야로"라는 차를 생산하여 대중에 보급하고 있다. 무등산의 허백련 화백은 해방 후 무등산 차 밭을 일본인에게 인수하여 춘설차를 생산한다. 하지만 '수구(물 식힘 그릇)' 의 등장은 물의 온도를 낮추어 차를 우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래된 탕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당시 도범 스님의 증언으로는 다관에 뜨거운 물을 잘 붓기 위해 수구처럼 생긴 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수구의 실체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이런 현상은 차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1979년에 한국 차인연합회(현회장 · 박권흠)를 결성, 전국 규모의 차 단체가 만들어졌다. 당시 차 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는 서울의 안광석 선생과 한웅빈 선생, 김규현, 윤종규여사 등이 있고, 다선회를 만들어 차를 알린 정원호 사장과 김종규 선생, 해남의 김봉호 선생. 해남병원 원장 김제현, 부산의 장명식회장, 최규옹 선생, 진주의 박종한 선생, 다례를 가르친 정승연 선생 같은 이들이 차를 알리기 위해 힘썼다. 승려들 중에는 일지암 초대 암주였던 용운 스님, 백운 스님, 고경 스님, 성우 스님, 여연 스님, 선혜 스님도 차 문화 운동에 활발히 동참했다.

70년대 후반에 일지암 복원을 위한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당시 김미희 여사, 박동선 회장의 후원과 복원을 위해 동참한 사람들에 의해 일지암 복원이 복원된 것이다. 일지암은 다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1981년에 매년 5월25일을 '차의 날' 로 선포했다. 이는 다인들의 결속과 차 문화 운동의 확산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차를 즐기는 승려들뿐 아니라 대중들의 차의 수요는 지리산의 김복순, 호남제다, 대한제다, 쌍계제다, 태평양 화학의 서성환 회장이 차 공장을 세워 대중화에 부응하였다. 초기 다구를 만든 분은 토우 김종희 선생이다. 이후 신정희 선생, 천한봉 선생 등이 다구를 만들면서 다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도공이 출현하였다.

사찰의 선방 승려들 사이에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찰의 손님 접대에는 언제나 차가 등장했는데 이는 사찰을 중심으로 차가 확산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현대 차 문화는 차의 전반적인 연구와 고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다. 차는 검소와 자기 정화에 쓰였던 음료다. 이 점을 간과한 것이 현대 차 문화이다. 이외에도 차 단체 간의 반목 또한 현대 차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는 차 문화를 다시 꽃피우려면 꼭 해결해야할 차계의 당면의 과제이다.

3)현대의 차 문화

실로 차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시에 소규모의 차 단체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1991년에 이귀례 회장은 한국차문화협회를 설립하여 2002년엔 규방다례가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앞서 명원문화재단을 설립, 2001년에 궁중다례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의정 이사장 등은 무형문화재가 되어 본격적인 차 문화 보급에 앞장선다. 한편 응송 박영희의 다법을 계승한 박동춘은 1985년 응송에게 "다도전계"를 받는 후 스승이 열반한 다음엔 승주에서 "동춘차"를 만들며, 전승과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2000년에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를 개설하여 후학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차학의 연구에 앞장 선 김명배 선생은 강의와 저술에 힘썼다. 불모지와 같던 차의 연구는 이런 분들의 노고에서 그 토대를 든든히 하였다. 차의 전문 잡지가 출간된 것은 80년대 초이다. 이후 〈다원〉, 〈다도〉, 〈차인〉, 〈차의 세계〉, 〈차와 문화〉 등 잡지가 출판되었다. 한국일보의 예용예 선생과 김대성 선생은 차의 역사와 현장을 취재하여 신문에 연재했으니 이는 차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각 사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차회는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대중 포교에 활용되었다. 차를 파는 가게 또한 인사동, 부산, 대구, 중소 도시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보이차의 유행에 따라 중국차를 파는 것이 대세였다.

90년대에는 실로 차의 전성기였다. 차 단체에서는 다례를 무대화하였다. 전통음악과 차가 결합되어 "다악"이란 공연이 열렸다. 이는 차가 다른 전통 문화와 결합된 형태로 차의 응용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뿐 깊은 감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차 단체의 폐쇄성과 갈등은 새로운 차 인구의 유입을 막는 요인이었다. 이 뿐 아니라 차농과 도공들은 좋은 차품과 다구를 만들 수 있는 이론적 토대도 미흡하였다. 다구를 만드는 도공들의 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실용성보다는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뤘다. 현대 차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따른 실용화를 주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차 문화가 침체된 이유이다. 하지만 차의 이로움을 전하려는 승려들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사찰의 문화마당엔 언제나 차가 등장했다. 이는 불교문화가 대중과 함께 공유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현대 차 문화가 일군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대학에 차학이 개설되어 차의 전문 인력을 배출한 것도 현대 차 문화 전개의 특징이다. 1999년 성신여대에서 예절다도학이 개설될 것을 필두로, 부산여자대학, 서원대학교와 목포대, 한서대, 성균관대, 원광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등에서 차 관련 학과가 개설, 차 관련 석. 박사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미 개설된 대학교에서 차학과가 폐과되는 등, 차의 침체는 대학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찰에서는 차와 명상을 템플스테이에 주요한 프로로 만들어 활용 중이다. 2000년대 이후 차에 대한 전문 서적도 다량 출판되어 명실 공히 차학의 학문적 토대가 풍부해졌다. 그러나 차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음에도 이들의 진로 문제가 불투명하다. 현재 차 문화는 아직도 발전을 모색 중이다. 커피와 홍차의 유행도 거쳐야 할 흐름이다. 사찰의 커피 유행도 시절 인연이다. 그렇다고 차 문화가 지닌 가치가 상실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기에 대중의 관심이 잠시 커피와 홍차로 집중되었을 뿐이다. 문화의 흐름은 늘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생활에 알맞은 차의 실용을 위한 차계의 노력은 현재진행이다. 더구나 차와 수행이 결합된 사원의 수행 풍토는 전통 차 문화의 토대이다. 수행을 윤활하게 한 차는 불교문화의 정수로 그 유용성이 크다. 따라서 사찰의 특성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명상과 융합된 차의 활용을 불교의 우수한 차 문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차 문화의 융성을 위한 차계의 분발도 요구된다.

차 문화 토대를 구축하게 한 도서들



〈한국의 다도〉와 저자 효당 스님

차의 역사부터 문화 · 철학 '한눈에'

효당 스님 '차 생활사' 필두로
학술 · 문화 통합된 전문서 발간

응송 스님, 대흥사 제다 탕법 소개
'차문화 천년' 시리즈 발간돼

차와 관련된 다서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1966년도이다. 이후 차 생활 뿐 아니라 차의 역사, 초의선사의 〈동다송〉 등이 소개되면서 한국 차 문화의 역사적인 고찰을 다룬 책들이 출판되었고, 중국의 차 문화, 일본의 다도를 소개하는 책들이 활발하게 출판된다. 특히 1990년 말, 대학에 차관련 학과 개설된 이후 차에 대한 역사, 철학, 문화, 차의 실용성을 다룬 논문이 대거 발표되면서 차학(茶學)의 학문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차의 문헌적 자료를 집성한 도서의 출판과 중국 다서를 소개하는 번역물이 많아진 것도 2000년 이후의 변화이다. 특히 차를 즐긴 문인, 수행자의 다시(茶詩)를 번역한 다서도 출판되어 차 문화의 역사, 문화적인 학문적 토대가 풍요로워졌다. 시기 별로 출판된 다서를 개략적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6년 효당 최범술 스님은 〈한국차생활사〉를 저술한다. 이는 차 문화 운동 초기 가장 먼저 차 생활을 위한 지침서로 차생활의 사적 고찰을 담았고, 다도와 다례를 별도 목차로 두었다. 1975년 〈한국의 다도〉를 저술하여 초의의 〈동다송〉을 소개한다. 그는 독서신문에 〈동다송〉을 연재하여 초의선사가 이룩한 차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1978년 명원 김미희는 생활다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1982년 김명배는 〈다도학〉을 저술하여 차나무의 원산지 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조선의 차와 선〉을 번역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의 다도〉와 〈일본다도〉뿐 아니라 〈한국의 다시감상〉등을 저술하여 차학의 학문적 토대를 풍부하게 했다. 1982년 석성우 스님은 〈다도〉를 출판하여 불교와 차 문화 관계를 조명하였다.

1985년 일지암 초대 암주인 용운 스님은 〈초의선사전집〉을 편찬, 초의가 저술한 자료를 수록하여 초의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 주었다. 1987년 〈한국다예〉를 저술하고 〈한국차문화자료집〉을 집성했다.

1985년 응송 박영희 스님은 〈동다정통고〉를 저술하여 대흥사의 다풍을 소개하는 한편 다각시절 대흥사의 탕법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초의와 교유했던 사대부들과의 관계를 밝혔다. 1986년 효동원에서는 〈다향선미〉1.2권을 간행, 차의 역사, 시문 등을 모아 편찬하였다.

1990년 정영선은 〈한국차문화〉와 〈다도철학〉를 저술, 차 문화사와 다도철학을 정리했다.

1994년 박희준은 〈차한잔〉을 펴냈는데, 차세시기이라는 조목에선 달마다 즐기는 차의 운치를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김대성은 〈차문화유적답사기〉상 · 중 · 하권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그가 한국일보 기자시절, 답사와 취재했던 자료를 모은 것이다. 그는 〈동다송〉도 번역, 출판하였다.

2000년 무산 스님은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를 썼다. 장유화는 육우의 〈다경〉을 번역하여 중국 차 문화의 대강을 소개하였다.

2001년 김상현은 〈한국의 다시〉를 저술, 사대부들과 승려들의 다시를 소개했으며, 2002년 이귀례는 〈한국의 차문화〉를 저술 한국 차의 역사와 정신 이외에도 규방다례를 규명했다.

2009년 송재소, 유홍준 등은 〈한국차문화 천년〉 1권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주)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연구한 자료를 출판한 것이다. 이후 〈한국차문화 천년〉2~7권을 간행, 풍부한 차사의 자료를 제공했다.

2010년 박동춘은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초의선사의 차문화연구〉를 출간, 초의선사의 교유관계 뿐 아니라 초의선사의 소장목록 등을 밝혔다. 이외에도 초의 선사의 자취를 따라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추사 김정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모음집 〈추사와 초의〉를 출판, 초의와 사대부들의 교유에 차가 매개물이었음을 밝혔다. 초의선사 관련 자료를 발굴, 연구했다. 이외에도 소개하지 못한 다서는 많다. 차의 실용화를 다룬 책이나 홍차 활용법을 소개한 도서들이 출판되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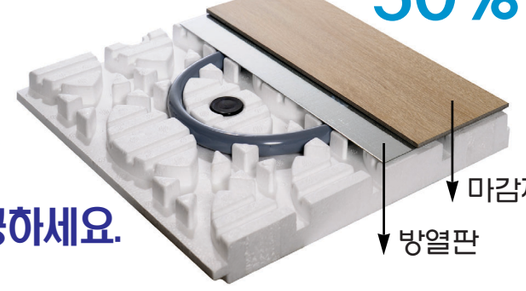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